

익산-유관기관, 식품인력 일자리 창출 협약

협업체계 구축, 식품산업 전문 지역인재 양성

익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인력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야가 점차 가속화되고 기업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안정적 고용을 위해 각 기관들이 갖는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 고용노동부 익산고용지원센터(지청장 김재훈),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중),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지역대학장 차진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최경옥) 등 관내 인력양성기관과 인력공급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학교 등 인력양성기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요 맞춤형 식품산업 전문 지역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고용노동부 등 인력공급기관은 분야와 입주기업의 시기별, 직무별 필요 인력에 대해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에도 주력하게 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기업들의 인력 및 교육 수요 조사, 교육 및 현장실습 연계, 취업인턴과 청년 창업지원Lab 운영 등 익산시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수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익산시를 비롯한 각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각 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수급,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고용 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익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인력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입주기업에 필요한 지역의 우수인력이 양성돼 취업과 창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식품 제형센터, 가정간편식(HMR)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 사업과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사회적 경제 체험교육 아이장터 개최

군산공설시장서 이동센터·청년물서포터즈단 100여명 참여

군산지역 어린이들이 사회적 경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터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지난 26일 군산공설시장 청년물서포터즈단 10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체험교육-아이장터'를 군산공설시장 청년물 사업단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공설시장 청년물 서포터즈단을 주축으로 미래의 경제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사회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개념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군산시와 군산공설시장 청년물 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군산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이장터 신청을 정기적으로 받아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또 청년물 서포터즈단과 함께 △ 청소년 대상 미디어 활용교육 실시 △ 전통시장 홍보콘텐츠 제작 △ 영상을 통해 청년물을 소개하는 'ON-LINE 장터'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은 군산공설시장 청년물 사업단 (063-445-4349)으로 하면 되고 군산공설시장 청년물 서포터즈단 운영대행단체인 투어앤미디어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체험교육-아이장터'로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상지원, 축산악취 저감 대책 추진 탄력

국가공모 '2019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 선정, 사업비 11억원 확보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 축산악취 저감 대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해 양돈농가가 밀집돼 있는 상지원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인 합영을 상지원 정착촌은 양돈농가 10호, 돈사 92개동, 사육두수 1만4000두의 규모로 돈사가 밀집되어 있어 고질적인 축산악취 민원 발생지역이다.

이번 광역사업을 통해 안개분무시설, 퇴비사멸패, 바이오커튼 등의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해 축사 내·외부의 악취를 감소시켜 주변지역의 악취 민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관련예산 1억 6천 만 원을 편성해 악취 측정 기계설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공개발표 후 농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진설링을 실시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난 25

일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축사가 밀집돼 악취민원이 많은 지역을 하나의 광역단위로 묶어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가 만족하고 상생하는 축산업 구원을 목표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

여름철 특별검역기간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은섭)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군산항 등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물품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남검역본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실과리 등 금지 식물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 보호 및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의 생과일, 휴부착 목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축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는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호남검역본부는 공항만 입국장내 순회조사 강화 및 특별검역기간 중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반입 자체 홍보 및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여행객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추진

익산시, 소상공인지킴이 교육

익산시가 지난 26일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4층)에서 소상공인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각 읍면동별 1~2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지킴이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 익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직접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및 접수대행시 구비서류 안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연계기관 연결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콜

센터 ☎1666-9988)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2천만원 이내, 연 2% 2년간 이자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일부지원(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피장려금 지원(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지급, 최대 12만원) 제도가 있다.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은 "우리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여조사항 해소 및 다양한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각종 매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나운동 문화센터 내 물놀이장 개장

군산 나운동 문화센터 내 물놀이장이 여름철을 맞아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9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된다.

이 물놀이장의 어린이 풀은 249㎡규

모로 1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미끄럼틀 물놀이 기구 등을 갖춰 매년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 유아풀은 면적 128㎡규모로 60명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나운동 물놀이장은 매일 용수를 교체해 수질이 깨끗하고 수심이 낮아 어린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

또 이곳은 어린자녀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도심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 5세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며 물놀이장에서는 취사행위 뿐만 아니라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경찰, 주민 공감 정성치안 종합 계획 마련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에서는 하반기 치안 방향을 정성(精誠)치안에 방점을 두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성치안 활동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 적극 실천에 돌입했다.

여성·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약자 분들의 안전과 참 행복 실현을 위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펼친다는 목표다.

먼저 추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청소년과가 주축이 되어 경무, 생안, 112, 수사, 형사, 경비교통, 정보보안, 청문 등 경찰서 전 기능이 한 팀이 되는 일명 사회적 약자 보호 정성치안 15개 항목으로 전가가 되도록 한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